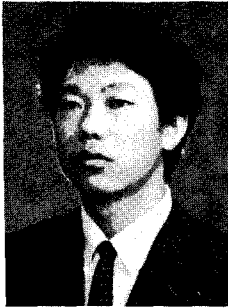


# 기술과 경영



송 덕 진

(주)중앙케미칼 기획부

농업 생산과정의 부산물을 이용한 부업 형태로 시작한 우리나라의 양계업은 일제하에서 '레그혼'종 플리머스·록 종 등이 수입되면서 산업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했고, 1945년의 광복 이후 약 30여년 동안 양계산업은 사양규모나 사양관리 기술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룬 산업 중의 하나가 되었다.

그 주요한 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수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경제성장과 함께 국민 생활의 패턴이 미곡위주에서 동물성 식품 위주로 전환되면서 축산물의 수요가 자연 증가하게 되었으며, 둘째, 축산물의 수요증가에 대한 공급과 농가소득 증대정책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축산정책을 수립하여 강력히 집행했으며, 셋째, 양계농민과 학자들이 일찍부터 산학협동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상호단결, 세미나 등 빈번한 기술의 보급과 습득에 노력한 결과이며 넷째는, 국내 자원이 부족한 사료의 수급문제를 정부가 적절히 수입, 공급을 원활히 했고, 다섯째는 조세감면 조치로 양계농민의 의욕을 고취시켰으며 여섯째, 양계협회의 발족으로 닭의 경제능력 검정이 실시되어 우량종계의 보급이며 일곱째는 동물약품 및 축산설비의 발달에 따른 기술향상 등을 열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요인으로 발전한 우리나라의 양계산업은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유류파동, 사료파동 등을 겪으며 수요와 공급, 투입재와 최종 생산물과의 관계 등으로 주기적인 반복을 계속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만성적인 생산과잉으로 인한 저난가의 장기적 지속은 현 시점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닌 현재의 양계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로는 질병, 사양관리, 시설설비, 인력관리, 유통관리, 정부정책, 수입개방압력 등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그동안 우리는 질병이나 사양관리 등 지엽적인 기술상의 문제에만 신경을 써오지 않았나 여겨진다. 그 결과 수요를 예

측하지 못한 과잉생산, 생산물의 구조적인 유통의 혼란, 압력단체로서의 미흡한 대정부 활동, 세계시장 경제의 정확한 분석에 따른 적절한 대응책 미비 등, 양계산업과 연관된 모든 변수들의 통괄적인 종합능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반문해 본다. 이제 이런 문제에 시각을 돌려 그 목소리를 갖기 시작한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여기서 오늘날의 양계산업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술적인 발전'과 더불어 생각해야 할 요소로서 '경영'이라는 개념을 제기해 봄직하다. 모든 문제의 인식은 인간의 사고로부터 시작되고 대응된다. 그러므로 기술의 인식과 함께 경영적 사고는 문제해결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우선 경영(經營)의 어원은 Betrieb(가축을 목장으로 몰고 간다)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즉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동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그외에도 학문적인 정의는 각양각색이나 우리의 양계산업 상황 극복과 연관될 수 있는 것으로서 '경영이란 어떠한 업무 또는 사업을 계획적으로 질서있게 영위하는 행동'이라는 정의와 '경영이란 생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가지 생산요소가 협동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부된 유기적 조직체이다'라는 정의를 제시할 수 있다. 여기서 계획적인 행동과 생산요소의 협동적 활동이라는 말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경영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즉 양계 경영의 주체는 양계인 바로 우리자신이며 양계산업에 있어서 경영의 개념은 양계산업의 목적 즉 양계 활동에 따른 이익증대와 그에 따른 사회기여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적인 행동과 생산요소의 합리적인 조합이라 하겠다.

다시 말하자면 양계산업활동에 따른 행동원리를 종합과학적인 시각으로 경제적·사회적·기술적 요소를 분석하여 그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는 개념인 것이다.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목적 수행의 필수요소인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인 요소를

놓고 양계산업과 연관시켜 볼 때 과연 양계경영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얼마만한 중요성으로 반영시켜 왔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재 2만수 규모의 채란업자가 3만수 규모로 확장하려 할 때 자신의 자본능력, 질병 및 사양관리 능력외에 만성적인 과잉생산, 계란의 낮은 가격탄성치, 유통기구의 영세성, 수입개방압력 등 경제적인 측면과 소비자의 식생활 패턴 변화, 폐수처리문제, 인력난 등 사회적인면을 생각해야 하며, 동시에 1만수를 더 늘렸을 때 수반되는 손익계산이 주먹구구식이 아닌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숫자화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숫자화시킬 수 있는 경영기술의 문제이다. 2차산업이나 3차산업에서의 경영기술은 상당히 발달하여 한 기업의 경영상태를 진단해 주는 전문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사회과학 분야로서의 그 역할은 대단하다.

그러나 1차산업인 농업에 있어서의 경영분석이나 숫자개념의 기술은 상당히 뒤져 있으며 그 구체성과 실질성이 매우 미흡하다. 그래도 축산업은 축산경영학 등의 도입으로 축산회계관리, 축산물 유통, 축산시장, 축산물원가, 축산경영 진단, 축산경영 분석 등 그 이론적 연구가 활발하나 아직은 우리 양계인들이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관심도 소홀한 편이다. 축산의 기술적인면과 경영적인면을 통괄조정 이용할 수 있는 양계인이 앞서가는 양계경영인이며, 이런 양계인이 경영하는 농장, 생산자단체, 유통기구 등이 현대의 양계산업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양계인일 것이다. 바야흐로 현대는 공산권과의 교역확대, 밀려오는 수입개방압력 등 국제화시대를 맞고 이 국제화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서 축산의 기술적인면에 경영적인 개념을 지닌 사고로 양계경영활동을 수행할 때, 당면한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국제화 시대에 적응하여 그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89년, 기사년 새해에는 양계기술과 경영의 총괄 개념으로 한국양계산업의 새로운 전기를 기대해 보자. **양계**